

일자리 으뜸기업 명단 (중소기업 42곳)

※ (주)를 포함한 가나다순

글로벌튼튼병원, 범한산업주, 북정제형주, 비나텍주, 암젠코리아 유한회사, 에스케이에어가스주, (주)경주생약 식품사업부, (주)글로우원, (주)나래나노텍, (주)누보, (주)다나와컴퓨터, (주)대신환경기술, (주)덕산테크피아, (주)동원아이팜, (주)맥키스컴퍼니, (주)메디트, (주)산돌식품, (주)삼미레이저, (주)샌드박스 네트워크, (주)서한, (주)성일정보, (주)아이씨알, (주)에스디물류, (주)에이치피케이, (주)에코프로이노베이션, (주)옴토닉스, (주)원익홀딩스, (주)유니월드, (주)인키움, (주)제일메디칼 코퍼레이션, (주)태성에스엔이, (주)토마토시스템, (주)토스, (주)푸드엔, (주)피알원, (주)한국건설 안전공사, (주)한맥푸드, (주)한성, (주)화신엔지니어링, 케이씨주, 펄지주, 한주금속주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25일 100개 기업을 ‘2019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와 일자리위원회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고용 개선에 기여한 기업을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해 신용평가·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혜택을 주고 있다.

이번에 인증된 기업은 모두 100곳으로 이들 기업이 지난해 신규 채용한 인력은 모두 1만1050명으로, 기업 1곳당 평균 110.5명이다. 같은 기간 국내 30인 이상 기업의 평균 신규 채용 인력(2.1명)보다 훨씬 많다.

일자리 으뜸기업의 이직률과 기간제 사용 비율은 전체기업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으로, 일자리의 질 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으뜸기업의 이직률은 1.8%로 같은 기간 30인 이상 전체기업의 이직률(3.5%)보다 1.7%포인트 낮았다. 기간제 비율의 경우 30인 이상 전체기업은 22.3%인 반면 일자리 으뜸기업은 4.3%로 5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 대기업(상시 노동자 1000인 이상) 18곳, 중견기업(300~999인) 40곳, 중소기업(30~299인) 42곳 등이 선정됐다.

 인쇄하기

 찜탈기